

雇 備 職 業 能 力 開 發 研 究
 第19卷(3), 2016, 12, pp. 163~190
 © 韓 國 職 業 能 力 開 發 院

상업계고등학교 남녀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 인 석*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고등학교 남녀졸업자의 경력 유형에 따른 취업의 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남성졸업자 342명, 여성졸업자 737명의 10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졸 후 첫해에 바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여성졸업자의 경우는 32.0%인데 비하여 남성졸업자는 9.4%로 나타났다. 졸업 후 경력의 발전과정을 집단별로 분류한 결과, 남성졸업자는 고졸 집단(51명, 14.9%), 전문대졸 집단(122명 35.7%), 4년제 대졸 집단(48명, 14.0%), 미상(121명, 35.4%) 등으로 나타났고, 여성졸업자는 고졸 집단(177명, 24.0%), 전문대졸 집단(206명 28.0%), 4년제 대졸 집단(73명, 9.9%), 미상(281명, 38.1%) 등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10차년 취업의 특성을 비교하면, 여성졸업자의 경우는 고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월평균 임금이 낮지 않았고 근속년수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졸업자의 경우는 고졸 집단이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았다. 한편 남성졸업자 집단들은 졸업 후 10차년에 고등학교의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한 비율이 26.5%-38.5% 정도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서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론에는 남학생의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 경력경로, 취업 지도, 상업계고등학교

투고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일: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8일

* 공주대학교 상업정보교육과 교수(siseo@kongju.ac.kr)

I. 서 론

특성화고등학교에 속하는 상업계고등학교는 정부의 고졸취업 확대 정책(교육과학기술부, 2010)에 따라서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우선으로 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지도는 일반적으로 졸업하는 연도의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학생의 취업지도가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졸업 이후 선택한 직업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가지는 장기적인 직업 경험을 경력이라고 한다(Arthur, Hall & Lawrence, 1989). 청년층 근로자의 경력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박진희·김용현(2010)의 연구는 경력초기 취업자들의 경력을 총 7개로 유형화하였다. 경력유형 중 노동시장진입퇴장반복형이 가장 많아서 안정된 경력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노동시장퇴장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열·이경미(2012)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기능인의 경력을 '생산직-관리직 균형 상향이동형', '생산직 집중-관리직 상향 이동형' 등과 같이 이직이 포함된 경력 유형과 '생산직 집중형', '전문직형' 등과 같이 한 직종에 집중하는 경력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김성남·최수정(2012)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졸업 후 7년간의 경력을 '대학재학형', '고졸 후 지속적 미상형', '고졸 후 취업형', '전문대 및 미상 혼합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상업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력을 발전시키고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서인석(2015)의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중 상업계고등학교 여성졸업자의 9년간 자료를 군집분석하여 7개의 유형의 경력 과정을 추출하였다. 분류된 군집 중 '고졸 후 취업' 군집과 '전문대 후 취업' 군집의 여성졸업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년제 대학 후 취업', '전문대 혼합 후 취업' 군집의 여성졸업자가 임금이 높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대학졸업자들이 임금이 높지만 상업계고등학교 여성졸업자 집단에서는 고졸자들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 ‘교육 거품’(이주호·정혁·홍성창, 2014) 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여성졸업자에 한정된 연구였다.

상업계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에게는 취업 환경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상업계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남성졸업자는 여성졸업자보다 취업하기가 어렵다(노경란·허선주, 2012).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성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 입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된다(이쌍철·염문영, 2014). 반면에 여성졸업자는 군 입대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고졸 여성취업자가 선호하는 직종인 경영·회계·사무관련직(김유선·권혜자·김종진·이명규, 2009)에 필요한 능력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취업에 남성졸업자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출발점이 다른 남성졸업자와 여성졸업자는 취업 후에도 상당히 다른 직업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동일한 방식의 취업지도도를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졸업자는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이나 진학 후에 장기적으로 거치는 직장에 관한 실태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김순미, 2013, 239; 강재태·배종훈·강대구, 2003).

이러한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10년간 경력경로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각각 어떤 경력경로를 거치는가를 조사하고, 또 남녀졸업자가 가진 직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상업계고등학교 남성졸업자의 취업지도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앞에서 언급한 서인석(2015)의 연구에서 여성졸업자의 경력경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분석 결과를 남성졸업자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졸업자와 남성졸업자의 경력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이유는 여성졸업자의 특성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졸업자의 특성과 문제점이 더욱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졸업 후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업계고등학교 남성졸업자의 취업지도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업계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고등학교졸업 후에 바로 취업할 경우와 대학교 진학 후 취업한 경우의 임금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를 학생에

게 제공하면 진로계획이 쉬울 것이다. 또 학교와 정책 당국이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도와 학업지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설계

1. 분석 대상

장기간의 자료 축적이 있어야 가능한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의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상업계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남녀졸업자의 경력형성 초기 10년간의 경력 발전에 대해서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학교 및 직장파 관련된 사항을 패널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성화고등학생에 대한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2,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후 동일한 표본을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하여 인적자원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해 오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본 연구가 진행된 2015-2016년에는 2013년 조사자료 즉, 10차 연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2004년) 자료부터 10차년(2013년) 자료 중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자료를 연결하여 세트를 구축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최종사례의 수는 남성졸업자 342명, 여성졸업자 737명이었다. 그러나 패널조사의 특성 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 조사대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에 실패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완벽한 확률추출이 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자료의 조사대상이 되는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장려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졸업생의 경력경로를 파악하면 취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업계고등학교 남학생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용할 정책과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력 요소의 분류

경력경로 분석을 위하여 먼저 본 연구의 표본이 되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직업과 학력을 포함한 경력 요소를 1년 단위별로 파악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의 경력과 관련되는 응답 내용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각 연도별로 분류하였다.¹⁾

- 상용직: 상용직에 취업한 것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²⁾
- 임시·일용직: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취업한 것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³⁾
- 가족노동: 무임금 가족노동을 하는 것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
- 자영업: 개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
- 재수: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1년 뒤에 대학진학을 원하는 것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2차 연도인 2005년에 한하여 조사됨)
- 취업포기: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
- 전문대: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 직업을 가진 것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동시에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재학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전문대로 구분함
- 4년제 대학: 4년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 직업을 가진 것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동시에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함
- 실업: 직업을 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직업이나 소속 학교가 없

1) 여기에서 사용한 경력요소의 분류는 서인석(2015)에서 사용한 기준을 따랐다.

2) 설문지에는 상용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3) 설문지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임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말함.(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임.)”

“일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

는 경우

- 무응답: 조사대상자가 다른 질문 항목에는 응답을 하였으나 경력과 관련되는 질문 항목에는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 미상: 해외체류나 군 입대, 가출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람이나 조사를 강력히 거절하여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고용조사의 패널데이터는 조사대상이 된 사람들을 매년 조사하여야 하지만 조사를 거부하거나 군 입대, 이민 등으로 소재를 찾을 수 없어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그 다음 해에는 조사에 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결측으로 제외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미상'으로 분류하였다.⁴⁾ 10차 연도 조사에서는 미상이 남성졸업자는 39.5%, 여성졸업자는 41%로 나타났다. 이 '미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패널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상'과 관련된 자료는 한정적으로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III. 분석의 결과

1. 경력의 전체적 상황

우선 전체 남성졸업자와 여성졸업자의 경력이 연차별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경력 요소별로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차 연도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2차 연도부터 경력 요소를 제시한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7차 연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김성남, 최수정(2012)의 연구에서도 '미상'이라고 분류하였다.

<표 1> 남녀 졸업자 전체 인원의 연차별 경력 요소

구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8차년		9차년		10차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성 졸업자	상용직	15	4.4	13	3.8	6	1.8	14	4.1	30	8.8	46	13.5	70	20.5	100	29.2	121	35.4	
	임시·일용직	16	4.7	11	3.2	2	0.6	6	1.8	15	4.4	21	6.1	23	6.7	13	3.8	15	4.4	
	가족노동	0	0					1	0.3					1	0.3	1	0.3	3	0.9	
	자영업	1	0.3							2	0.6	5	1.5	4	1.2	6	1.8	13	3.8	
	계수	7	2.0																	
	취업포기	8	2.3			1	0.3			3	0.9			2	0.6	3	0.9	1	0.3	
	전문대학	157	45.9	60	17.5	15	4.4	69	20.2	89	26.0	51	14.9	37	10.8	24	7.0	15	4.4	
	4년제 대학	60	17.5	18	5.3	5	1.5	41	12.0	38	11.1	43	12.6	33	9.6	24	7.0	11	3.2	
	실업	15	4.4	4	1.2			3	0.9	12	3.5	3	0.9	9	2.6	12	3.5	4	1.2	
	무응답	3	0.9	6	1.8	6	1.8	10	2.9	13	3.8	25	7.3	15	4.4	14	4.1	24	7.0	
	미상	60	17.5	230	67.3	307	89.8	198	57.9	140	40.9	148	43.3	148	43.3	145	42.4	135	39.5	
	합계	342	100	342	100	342	100	342	100	342	100	342	100	342	100	342	100	342	100	
	여성 졸업자	상용직	211	28.6	173	23.5	233	31.6	235	31.9	252	34.2	259	35.1	242	32.8	251	34.1	263	35.7
		임시·일용직	23	3.1	23	3.1	37	5.0	27	3.7	35	4.7	31	4.2	35	4.7	28	3.8	26	3.5
가족노동		2	0.3	2	0.3	2	0.3	2	0.3	4	0.5	2	0.3	4	0.5	3	0.4	2	0.3	
자영업						3	0.4	1	0.1	4	0.5	5	0.7	5	0.7	10	1.4	11	1.5	
계수		20	2.7																	
취업포기		14	1.9	1	0.1	6	0.8	5	0.7	3	0.4	4	0.5	3	0.4	1	0.1	3	0.4	
전문대학		241	32.7	241	32.7	110	14.9	49	6.6	35	4.7	22	3.0	12	1.6	14	1.9	6	0.8	
4년제 대학		92	12.5	82	11.1	73	9.9	79	10.7	45	6.1	32	4.3	18	2.4	21	2.8	12	1.6	
실업		35	4.7	15	2.0	28	3.8	24	3.3	30	4.1	24	3.3	31	4.2	18	2.4	31	4.2	
무응답		4	0.5	39	5.3	33	4.5	42	5.7	54	7.3	57	7.7	56	7.6	79	10.7	81	11.0	
미상		95	12.9	161	21.8	212	28.8	273	37.0	275	37.3	301	40.8	331	44.9	312	42.3	302	41.0	
합계		737	100	737	100	737	100	737	100	737	100	737	100	737	100	737	100	737	100	

먼저 남성졸업자는 본 연구의 데이터인 교육고용조사에는 342명이며, 2차 연도에 졸업 후 취업을 한사람이 32명(상용직 15명, 임시·일용직 16명, 자영업 1명)이었으며, 진학을 한 사람이 217명(전문대 157명, 4년제 대학 60명)이다. 전체인원 342명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자비율은 9.4%, 진학자비율은 63.5%이며, 전체인원 중 미상에 해당하는 60명을 제외한 282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업자비율은 11.3%, 진학자비율은 77.0%이다.

10차 연도에는 취업한 남성졸업자가 152명(상용직 121명, 임시·일용직 15명, 가족노동 3명, 자영업 13명)이며, 대학에 재학중인 남성졸업자는 26명(전문대 15명, 4년제 대학 11명)이다. 전체인원 342명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자비율은 44.4%, 재학자비율은 7.6%이며, 전체인원 중 미상에 해당하는 135명을 제외한 207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업자비율은 73.4%, 재학자비율은 12.6%이다. 한편 3-4차 연도에는 조사자의 대부분이 군 입대를 하여 미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67.3%와 89.8%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는 미상이 줄었다.

한편 여성졸업자는 전체 737명이며, 2차 연도에 졸업하여 취업을 한사람이 236명(상용직 211명, 임시·일용직 23명, 가족노동 2명)이었으며, 진학을 한 여성졸업자가 333명(전문대 241명, 4년제 대학 92명)이다. 전체인원 737명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자비율은 32.0%, 진학자비율은 45.2%이며, 전체인원 중 미상에 해당하는 95명을 제외한 642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업자비율은 36.8%, 진학자비율은 51.9%이다.

10차 연도에는 취업한 여성졸업자가 302명(상용직 263명, 임시·일용직 26명, 가족노동 2명, 자영업 11명)이며,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은 18명(전문대 6명, 4년제 대학 12명)이다. 전체인원 737명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자비율은 41.0%, 재학자비율은 2.4%이며, 전체인원 중 미상에 해당하는 302명을 제외한 435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업자비율은 69.4%, 재학자비율은 4.1%이다. 대학재학생은 2차 연도에 3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차 연도에는 그 수가 상당히 줄었다. 8, 9, 10차 연도에도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거나 여러 번 휴학을 했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남성졸업자와 여성졸업자의 경력진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남성졸업자의 전체 수가 여성졸업자의 반 정도(남성졸업자 342명 : 여성졸업자 737명) 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의 두 배 이상이 된다. 상업계고등학교에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졸업 첫해 전체 인원 대비 취업률은 남성졸업자는 9.4%(미상을 제외한 비율은 11.3%)이고, 여성졸업자는 32.0%(미상을 제외한 비율은 36.8%)이었다. 즉, 남성졸업자들은 여성졸업자들에 비하여 졸업초기 취업자비율이 매우 낮았다. 반면에 졸업 첫해의 대학진학비율은 남성졸업자가 63.5%(미상을 제외한 비율은 77.0%)이고, 여성졸업자는 45.2%(미상을 제외한 비율은 51.9%)이어서 남성졸업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졸업자의 취업률은 7차년 21.1%, 8차년 28.7%, 9차년 35.1%, 10차년 44.4%로 해가 감에 따라 증가한 반면에, 여성졸업자는 7년차 40.3%, 8년차 38.8%, 9년차 39.6%, 10년차 41.0%로 정체되어 있었다. 졸업 후 초기에는 남성졸업자의 취업비율이 많지 않았지만 10년 뒤에는 남성졸업자의 취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졸업자에 비교하여 남성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에 취업하기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며 대학졸업 후에 취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고졸 취업자를 늘리고자 하면 남성졸업자들이 졸업 초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넷째, 남성졸업자는 군 입대 때문에 경력이 2-3년 정도 단절이 있다. 이에 따라서 학업의 종료와 취업이 지연되었다.

2. 경력 분류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고등학교 남성졸업자와 여성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을 학력 별로 분류하였다. 2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의 매년도 경력 요소에 따라 각 표본이 속하는 유형을 판정하였다. 판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고졸 집단: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됨. 전문대학에 1년 이하만 재학하였거나 4년제 대학에 2년 이하만 재학한 경우도 이 집단에 속함.
- 전문대졸 집단: 전문대학에 2년 이상 재학한 사람이 해당됨.
- 4년제 대졸 집단: 4년제 대학에 3년 이상 재학한 사람이 해당됨.
- 미상 집단: 조사 해당 기간 중 7~10차년의 4년 중에서 3년 이상 미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해당됨. 다만 마지막 연도에 미상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면 이 집단에 해당되지 않음.

4개 집단의 경력경로의 내용은 남성졸업자는 <표 2>, 여성졸업자는 <표 3>과 같다. 먼저 <표 2>는 남성 표본을 각 연도의 경력요소에 따라 4개의 경력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4개의 집단은 각각 미상 집단, 고졸 집단, 전문대졸 집단, 4년제 대졸 집단 등으로 명명하였다. 4개의 집단 중 미상 집단은 7~10차년에 미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인원은 121명(전체 342명의 35.4%)이었다. 정상적으로 응답하여 분류된 3개의 집단은 고졸 집단(51명, 14.9%), 전문대졸 집단(122명 35.7%), 4년제 대졸 집단(48명, 14.0%) 등이다. 이들 집단 중에서 고졸 집단이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3~4차년 사이에 미상이 최대경력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시기에 남성졸업자들이 군 입대를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남성졸업자 각 집단의 연도별 경력 진행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미상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입학이나 졸업 후에 미상으로 변화하였다. 이들 집단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한다.

고졸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진출하였다. 처음에는 전문대학에 1년 동안 재학하기도 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로 있기도 하였다. 3~5차년에는 군 입대로 미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많았다. 취업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가족노동, 자기사업을 합산하여 2차년에 17명이었다. 이는 이 집단 포함인원 51명의 33.3%이었다. 3~5차년에는 군 입대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10차년에는 취업자가 39명이 되었으며, 이는 이 집단 포함인원 51명의 76.5%이었다.

전문대졸 집단은 전문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후 상용직, 임시·일용직 등으로 취업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실업이나 무응답으로 1~2년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이 집단에 속한 인원이 전문대학에 재학한 기간을 확인한 결과, 전체 122명 중 2년간 재학한 사람은 34명(27.9%), 3년간 재학한 사람은 34명(27.9%), 4년간 재학한 사람은 33명(27.0%), 5년간 재학한 사람은 15명(12.3%), 6년 이상 재학한 사람은 6명(4.9%)이었다. 평균 재학기간은 3.4016년이었다. 이들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군복무를 하였고, 6차 연도부터 취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0차년에 취업한 사람들은 상용직 68명, 임시일용직 9명, 가족노동 1명, 개인사업 6명 등으로 이들의 수를 합하면 84명이었으며, 이는 이 집단 포함인원 122명의 68.9%이었다.

4년제 대졸 집단은 4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중간에 군복무 후 상용직, 임시·일용직등으로 취업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중간에 실업이나 무응답으로 1-2년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8차 연도부터 취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차년에는 상용직 22명, 임시·일용직 3명, 가족노동 1명, 개인사업 3명 등으로 이들을 합하면 29명이었으며, 이는 이 집단 포함인원 48명의 60.4%이었다.

〈표 3〉은 여성 표본을 각 연도의 경력요소에 따라 4개의 경력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4개의 집단은 각각 미상 집단, 고졸 집단, 전문대졸 집단, 4년제 대졸 집단 등으로 명명하였다. 4개의 집단 중 미상 집단은 7~10차년에 미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인원은 281명(전체 737명의 38.1%)이 된다. 이 집단을 제외하면 3개의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 집단은 고졸 집단(177명, 24.0%), 전문대졸 집단(206명 28.0%), 4년제 대졸 집단(73명, 9.9%) 등이다.

여성졸업자도 미상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입학이나 졸업 후에 미상으로 변화했다. 이들 집단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한다.

고졸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진출하였다. 중간에 1년 정도 전문대학에 다니거나 실업이나 무응답, 미상의 상태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취업자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가족노동, 자기사업을 합산한 값으로 볼 때 2차년에 116명 이었다. 이는 이 집단 포함인원 177명의 65.6%이었다. 10차년에는 취업자가 114명이었으며 이 집단 포함인원 177명의 64.4%이었다. 이 집단에 포함된 표본이 앞의 남성졸업자에 비하여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문대졸 집단은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한 후 취업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3~4년차까지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4~5년차에 취업하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고졸 4~5년 후에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다닌 사람도 있다. 이 집단에 속한 인원이 전문대학에 재학한 기간을 확인한 결과, 전체 206명 중 2년간 재학한 사람은 120명(58.3%), 3년간 재학한 사람은 67명(32.5%), 4년간 재학한 사람은 16명(7.8%), 5년간 재학한 사람은 3명(1.5%)이었다. 평균 재학기간은 2.5243년이었다. 중간에 1~2년 정도 4년제 대학에 다니거나 실업이나 무응답, 미상의 상태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10차년에 140명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가족노동, 자기사업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집단 인원 206명의 68.0%이었다.

4년제 대졸 집단은 4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5~6차년까지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였고, 6~7년차에 취업하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중간에 실업이나 무응답으로 1~2년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10년차에 48명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자기사업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 인원 73명의 65.8%이었다.

이러한 여성졸업자 집단의 양상과 비교하여 남성졸업자 집단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 고졸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이 여성졸업자보다 남성졸업자의 경우에 더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졸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남성졸업자는 남성 전체의 14.9%이었지만, 여성졸업자의 경우는 여성 전체의 24.0%에 해당한다. 남성졸업자는 고졸 집단에 속한 사람의 비율이 여성졸업자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졸업자는 여성졸업자에 비하여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씩 많다. 10차년에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남성은 고졸 집단은 76.5%, 전문대졸 집단은 68.9%, 4년제 대졸 집단은 50.4%이고, 여성은 고졸 집단은 64.4%, 전문대졸 집단은 67.9%, 4년제 대졸 집단은 65.8%이었다.

고졸 집단은 남성졸업자의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집단은 비슷하였고, 4년제 대졸 집단은 여성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전문대졸 집단의 경우 남성졸업자는 평균재학기간이 3.4016이며, 여성졸업자는 2.5243으로 나타나서 남성졸업자의 재학기간이 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학기간 계산에 군복무기간은 제외하였다. 남성졸업자들은 일반적인 재학기간 이상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중간이나 졸업한 후에 다른 학교에 한 번 더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잦은 휴학 및 중단이 있거나 미취업 상태가 긴 사람들은 본인이 축적한 인적자본이 감가상각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축적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진희, 김용현, 2010)를 감안하여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상업계고등학교 남성졸업자들이 진학 후의 학습이 정상적인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진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남성졸업자와 여성졸업자 각 집단 인원의 취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4>, <표 5>과 같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사람들의 10차년의 취업 특성을 분석하였다⁵⁾. 다만 미상으로 표시된 사람이 대부분인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 남성졸업자 10차년 집단별 취업 특성

	고졸 집단		전문대졸 집단		4년제졸 집단		F값 (분산분석)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일주일 총근무시간	34	55.03	82	52.04	26	51.24	1.222
월평균 임금(만원)	29	146.66	74	178.32	23	181.00	4.281 *
월평균 초과근로수당(만원)	28	21.21	71	11.61	23	14.53	1.704
월평균 특별급여 (상여금 등)(만원)	28	17.71	70	14.39	22	24.32	.745
전반적 직장만족도	35	3.60	87	3.34	27	3.52	1.630
근속연수	35	2.77	86	2.71	27	2.04	1.882

*: p<0.05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10차년(2013년) 조사의 설문에서 조사한 일주일 총근무시간, 월평균 임금,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월평균 특별급여, 전반적 직장만족도(리커트 5점 척도), 근속 연수 등의 값을 사용하였다. 월평균 임금을 3,000만원으로 표시한 한 사례는 이상점(outlier)으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근속연수는 근무시작 시기를 2013년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2012년으로 표시한 경우는 2년으로 하는 방식으로 환산하였다. 2004년으로 표시한 경우는 10년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남성졸업자의 10차년 집단별 취업의 특성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총근무시간은 고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주당 3~4시간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 값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임금은 월평균 임금이 고졸 집단 146.66만원, 전문대졸 집단 178.32만원, 4년제 대졸 집단 181.00만원이었다. 고졸 집단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근속년수는 고졸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 4년제 대졸 집단은 각각 2.77년과 2.71년, 2.04년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고졸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9년 중 군 입대 기간을 제외하고 6~7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7년의 근속년수만 나타났고 다른 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고졸 남성졸업자들이 노동이동이 많아서 박진희·김용현(2010)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경력형성 초기에 직장이동이 많으면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원 형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Light and McGarry, 1998). 본 연구의 남성 고졸 집단이 한 직장에 정착하는 정도가 높지 않고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것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앞으로 상업계고등학교 졸업 남성취업자들이 근로경험을 통해 인적자원을 형성(Neal, 1999)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직장만족도는 각각 고졸 집단 3.60, 전문대졸 집단 3.34, 4년제 대졸 집단 3.52로 고졸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5> 여성졸업자 10차년 집단별 취업 특성

	고졸 집단		전문대졸 집단		4년제졸 집단		F값 (분산분석)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일주일 총근무시간	108	47.52	135	46.57	48	45.06	1.029
월평균 임금(만원)	90	151.20	118	158.14	43	153.23	.880
월평균 초과근로수당(만원)	92	6.97	115	5.90	45	5.19	.278
월평균 특별급여 (상여금 등)(만원)	91	19.63	116	7.92	44	15.50	5.186 **
전반적 직장만족도	110	3.36	138	3.26	48	3.23	.712
근속년수	109	4.42	137	3.31	48	3.20	6.476 **

** : p<0.01

여성졸업자의 10차년 집단별 취업의 특성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총근무시간은 고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주당 1~2시간 많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임금은 월평균 임금이 고졸 집단 151.20만원, 전문대졸 집단 158.14만원, 4년제 대졸 집단 153.24만원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다만 고졸 집단은 월평균 특별급여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4년제 대졸 집단이 가장 짧은 것으로 (3.20년) 나타났고, 고졸 집단이 가장 긴 것으로(4.42년) 나타났다. 고졸 취업 집단이 근속 연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직장만족도는 각각 고졸 집단 3.36, 전문대졸 집단 3.26, 4년제 대졸 집단 3.23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여성졸업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고졸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대졸 집단들과 비슷하며 근속 연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고졸 후에 취업을 하여 꾸준히 근무를 한다면 다른 경력경로의 사람들과 비슷한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고학력자의 임금이나 취업의 조건이 더 높다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김유선 외, 2009)와 차이가 난다. 반면에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호 외(20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하여 임금이 낮았다.

남녀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졸업자의 경우는 고졸 집단의 근무조건이 남성 집단 중 불리한 경향을 보였지만, 여성졸업자는 고졸 집단이 근무조건이 다른 여성 집단보다 나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각 집단의 사람들이 취업한 직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6>, <표 7>과 같이 남성졸업자와 여성졸업자의 10차년의 취업 직종을 파악하였다. 상업계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비추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상업디자인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등이 상업계고등학교 전공관련 직종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별 직종이 전공관련 직종에 해당하는가는 1차로 연구자가 판단하고, 2차로 상업계고등학교의 상업정보 교사 8명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표 7>에 *표로 표시하였다.

<표 6> 남성졸업자 10년차 집단별 취업 직종

직 종	빈 도		
	고졸 집단	전문대 졸 집단	4년제 대졸 집단
판매 관련 관리자*			1
농림어업 관련 관리자		1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가*			1
행사기획자*		1	
경영 관련 사무직*	1	3	1
인사노무사무원*	1	1	
구매 및 자재사무원*	2	1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원*		4	
운송 및 선적사무원*	1		
고객상담원*		1	
사무보조원*			1
금융사무원(보험사무 제외)*			1
보험모집인*		1	
학원강사		1	
소방관		2	
물리치료사		1	
치과기공사		1	
안경사		1	
디자인 관련직*		2	
제품디자이너*		1	
패션디자이너*		1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1		
지게차 운전원		1	
운송관련 단순직	1		
우편물 집배원	1		
기타 배달 및 수하물운반원	4	3	
일반영업원(자동차영업원 제외)*	1	1	2
상점판매 및 관리인*		1	1
상점판매원*	2	11	2
무인 경비시스템 종사원	1	1	1
기타 경비, 경호, 건물관리 관련직	1	1	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	

직 종	빈 도		
	고졸 집단	전문대 졸 집단	4년제 대졸 집단
레크레이션진행자 및 스포츠강사	2	2	3
기타 레저 및 스포츠 관련직		1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1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		2	
건설 관련직			1
건축공학기술자		1	1
지적 및 측량기술자(측량사 포함)		1	
건축완성 관련직		1	
배관원	1		
바닥재시공원		1	
건설기계운전원	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1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		1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2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원	1	1	
자동차정비원			1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		
금형원		1	
공구제조원		1	
보일러 및 냉동 관련 설비 조작원	1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조작원		1	
일반기계조립 및 검사원	1		
용접원	1	1	1
유리제조 및 가공 관련 조작원		1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조작원			1
화학제품제조 관련 조작원		1	
고무제품제조 관련 조작원		1	
플라스틱제품제조 관련 조작원	1		
기타 화학제품제조 관련 조작원		1	
전공			1
컴퓨터·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			1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	
기타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수리원		1	

직 종	빈 도		
	고졸 집단	전문대 졸 집단	4년제 대졸 집단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2	7	1
통신공학기술자		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1	1	1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2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		1	
컴퓨터보안전문가		1	
방송장비(H/W) 설치 및 수리원	1		
육·어류가공 및 낙농제품제조 관련 조직원		1	
인쇄기 조직원		1	
종이제품제조 관련 조직원	1		
포장원		1	
직업군인	2	1	1
미상 및 결측	17	36	22
전체인원	51	122	48
유효인원	34	86	26
전공 관련 직종 인원수(비율%)	9(26.5)	29(33.7)	10(38.5)

*: 전공(상업)관련 직종

먼저 남성졸업자의 10차년의 근무 직종이 전공과의 관련성을 가지는 직종인가를 파악하였다. 각 집단별로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한 비율을 보면, 고졸 집단은 조사의 유효인원 34명 중 9명(26.5%)이었다. 전문대졸 집단은 조사의 유효인원 86명 중 29명(33.7%)이 전공관련 직종에 취업하였고, 4년제 대졸 집단은 조사의 유효인원 26명 중 10명(38.5%)이 전공관련 직종에 취업하였다.

상업계고등학교의 남성졸업자들은 고등학교의 전공관련 직종에 취업한 비율이 집단별로 40% 이하인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졸 집단이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업계고등학교의 남성졸업자가 졸업 9년 뒤에 전공에 따라서 취업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여성졸업자 10년차 집단별 취업 직종

직 종	빈 도		
	고졸 집단	전문대 졸 집단	4년제 대졸 집단
사업, 금융 및 사무관련 관리직*	1		
광고 및 홍보 전문가*			1
기타 경영회계 관련 전문가*		1	
경영 관련 사무직*	5	20	6
마케팅사무원*	1		
인사노무사무원*			1
구매 및 자재사무원*	1	2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원*	3	2	
운송 및 선적사무원*	1	1	
무역사무원(관세사무원 포함)*	1		1
총무사무원*	1	2	5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1
회계사무원*	1	3	3
경리사무원*	6	9	3
안내·접수·전화교환원*	2	2	
고객상담원*	4	3	1
비서*		3	
사무보조원*	2	4	
금융사무원(보험사무 제외)*		3	1
출납창구사무원*	1	2	1
중등학교교사			1
유치원교사		6	
기술·기능계 강사	1		
예능계 강사	1		
간호사(조산사 포함)	3	8	
물리치료사		2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	
임상병리사		1	
치과위생사		6	
간호조무사	15	4	1
기타 의료 관련 서비스직		1	
사회복지 전문직		1	

직 종	빈 도		
	고졸 집단	전문대 졸 집단	4년제 대졸 집단
사회복지사		2	3
상담전문가		1	1
보육교사 및 보육사	1	8	1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		1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1
학예사 및 문화재보존원			1
무용가 및 안무가		1	
제품디자이너*		1	1
시각디자이너*	1	2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3	3	
제도사(캐드원)	1	1	
영화,연극 및 방송 기술감독			1
촬영기사			1
해외영업원*			1
일반영업원(자동차영업원 제외)*	1		
상점판매 및 관리인*	1		1
상점판매원*	15	9	1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2	
계산원 및 대표원*		2	
미용사	3	2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2	3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1	
애완동물 미용사		1	
기타 이·미용 관련 서비스직	1		
결혼상담원		1	1
여행안내원			1
항공기객실승무원			1
레크레이션진행자 및 스포츠강사		1	1
접객원(웨이터, 웨이트리스)	2		1
건축공학기술자			1
건설건설원(적산원)		1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		1	
자동차 조립 및 검사원	1		

직 종	빈 도		
	고졸 집단	전문대 졸 집단	4년제 대졸 집단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1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직원	1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24	4	1
컴퓨터보안전문가			1
웹개발자			1
제빵·제과원		1	
음료 제조 관련 조직원		1	
사진인화 및 현상 관련 조직원		1	
포장원	1		
미상 및 결측	68	68	25
전체인원	177	206	73
유효인원	109	138	48
전공 관련 직종 인원수(비율%)	51(46.8)	77(55.8)	28(58.3)

*: 전공(상업)관련 직종

여성졸업자의 10차년의 근무 직종도 전공과의 관련성을 가지는 직종인가를 <표 7>과 같이 파악하였다. 각 집단별로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한 비율을 보면, 고졸 집단은 조사의 유효인원 109명 중 51명(46.8%)이었다. 전문대졸 집단은 조사의 유효인원 138명 중 77명(55.8%)이 전공관련 직종에 취업하였고, 4년제 대졸 집단은 조사의 유효인원 48명 중 28명(58.3%)이 전공관련 직종에 취업하였다.

상업계고등학교의 여성졸업자들은 전공관련 직종에 취업한 비율이 집단별로 46.8%~58.3%이어서 남성졸업자의 26.5%~38.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경력 유형과 그에 따른 취업의 특징을 10년간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졸 후 첫해에 바

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여성졸업자의 경우는 32.0%(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미상'으로 분류된 사람을 제외하고 계산한 비율은 36.8%)인데 비하여 남성졸업자는 9.4%(미상을 제외한 비율은 11.3%)로 나타나서 그 비율이 낮았다. 반면에 10차년에는 남성졸업자의 취업률이 44.4%(미상을 제외한 비율은 73.4%), 여성졸업자의 취업률이 41.0%(미상을 제외한 비율은 69.4%)로 나타나서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남성졸업자가 장기적으로는 취업을 더 많이 하지만 졸업 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졸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남성졸업자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졸업 후 경력의 발전과정을 집단별로 분류한 결과, 남성졸업자는 고졸 집단(14.9%), 전문대졸 집단(35.7%), 4년제 대졸 집단(14.0%), 미상(35.4%) 등으로 나타났고, 여성졸업자는 고졸 집단(24.0%), 전문대졸 집단(28.0%), 4년제 대졸 집단(9.9%), 미상(38.1%) 등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고졸 집단이 있지만 남성졸업자는 포함된 인원의 비율이 적었다.

남성과 여성졸업자 각 집단의 10차년 취업의 특성을 비교하면, 여성졸업자의 경우는 고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월평균 임금이 낮지 않았고 근속년수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졸업자의 경우는 고졸 집단이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았고 근속년수가 주어진 여건에 비하여 길게 나타나지 않았다. 직장이동이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상업계고등학교의 여성졸업자 집단들은 10차년에 고등학교의 전공관련 직종에 취업한 비율이 46.8%~58.3%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졸업자 집단들은 전공관련 직종에 취업한 비율은 26.5%~38.5% 정도로만 나타났다. 이렇게 남성졸업자가 직장이동이 많고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게 되면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원 형성의 기회가 부족하여(Light and McGarry, 1998)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상업계고등학교 남학생은 여학생과 다른 진로지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등학생의 발달수준에서는 직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강재태·배종훈·강대구, 2003). 취업에 불리한 상황에 있는 상업계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진로지도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로지도의 방법에 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볼 수 있다.

남성졸업자의 장기적인 경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여성졸업자에 비하여 남성졸업자가 전공관련 직종에 적게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유선 외(2009)의 2007-2008년 워크넷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 고졸 청년의 희망직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구직자의 84.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구직자의 4.8%)이어서 상업계고등학교의 전공과의 관련성이 깊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남성 고졸 청년의 희망직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구직자의 20.8%), 기계관련직(구직자의 15.2%), 전기·전자 관련직(구직자의 14.2%), 운전·운송관련직(구직자의 11.8%), 단순생산직(구직자의 9.5%), 영업 및 판매 관련직(구직자의 6.4%)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이 뚜렷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직종 선호에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상업계고등학교 남자졸업자들은 상업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적었다. 앞으로 상업계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 대해서는 상업의 전공을 유지하면서도 남학생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직종의 예로는 물류관리, 유통관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별학교에서 남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야에 관련된 학과목을 많이 개설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러한 직종에 특화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또 학교 교육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서 진로교육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조아미(2007)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 직업결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늦게 시작하고 직업에 관해 늦게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고졸 집단의 남성졸업자들이 여성졸업자에 비하여 초기에 취업이 늦거나, 전문대졸 집단의 남학생이 전문대학 재학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특히 남학생에게 직업관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여 남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업계고등학교 여성졸업자의 경우는 임금면에서 고졸자가 대졸자들보다 불리하지 않았지만, 남성졸업자의 경우는 고졸자가 대

졸자보다 불리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면에서 상업계고등학교 남성졸업자는 대학 진학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려는 욕구가 높을 것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통하여 상업계고등학교 남성졸업자에게 후진학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취업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일학습병행제는 주로 기술·기능에 관한 직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상업계고등학교 남성졸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앞으로 상업계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사람들에게도 일학습병행제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업계고등학교 남성졸업자의 경력경로를 분석하고 취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는 유용한 시사점을 얻었지만 일정한 한계도 있다. 가장 큰 한계는 패널조사의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조사에 실패하여 미상이 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미래의 연구에는 이러한 조사 실패가 적은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본 연구보다 더 많은 표본이 포함된 자료를 확보하여 본 연구보다 더 다양한 분류기준(예, 지역)으로 졸업자의 경력경로를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하면 더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태·배중훈·강대구(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교육과학기술부(2010). 『고등학교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 김순미(2013). 『진로정보활동』, 『새롭게 보는 진로상담』, 239쪽, 교육과학사.
- 김성남·최수정(2012). 『청년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227~249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김유선·권혜자·김종진·이명규(2009).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노경란·허선주(2012).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5권 제2호, 25~49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열·이경미(2012). 『특성화고졸 기능직 입직자의 경력경로유형과 경력경로 형성 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4권 제2호, 25~48쪽,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박진희·김용현(2010). 『경제활동 및 직업이력 유형별 경력개발경로 분석-경력초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서인석(2015). 『상업계고등학교 여성 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1~26쪽, 한국상업교육학회.
- 이쌍철·엄문영(2014). 『특성화고 취업의 특징과 취업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징 분석』, 『한국교육』, 제41권 제3호, 89~117쪽,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호·정혁·홍성창(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제46호, 1~8쪽, 한국개발연구원.
- 조아미(2007). 『청소년의 직업결정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5권 제1호, 11~20쪽, 한국청소년시설학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2004)~10차(2013)년도 조사사용자지침서』.

- Arthur, M. B., Hall, D. R. & Lawrence, B. S.(1989). *Handbook of Career Theor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ght, A. & K. McGarry(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0 No.2, pp.276 ~ 286.
- Neal, D.(1999).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7 No.2, pp.237 ~ 261.

Abstract

A Study on Career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Business High School Male and Female Graduates

In Seog Seo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areer paths of business high school male and female graduates. Using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this study analyzed the 10-year career data of 342 male graduates and 737 female graduates at business high school who were third-year high school students in 2004.

Four career types were found among male and female graduates: ‘Work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14.9% of male graduates, 24.0% of female graduates), ‘Work after junior college graduation’ (35.7%, 28.0%), ‘Work after university graduation’ (14.0%, 9.9%), and ‘Continuously unknown status’ (35.4%, 38.1%).

The wages of female graduates in ‘Work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were not lower than those of other career-type female graduates. On the other hand, the wages of male graduates in ‘Work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were lower than those of other career-type male graduates. The job fields of less than 40% of male graduates were related to their major in high schoo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o expand the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male students in business high schools.

Key words : career path, vocational guidance, business high school